

# 상권끼리 손 잡았더니 행사가 축제로... 관광객 발길 이끈다

**롯데백-서울시 '명동 페스티벌'**  
"상인들에 봄 부르는 축제 되길"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 슈퍼패스'**  
두타몰 등 7개사와 한달간 행사

**서울 성수동 동시다발 '팝업'**  
"여러개 브랜드 모여 시너지 효과"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열린 '명동 페스티벌 2023'에서 개막 세리머니로 페스티벌 캐릭터인 '미응이'와 라퍼커션의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와 롯데백화점은 오는 5월 7일까지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명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뉴시스

유통기업들이 상권 전체를 띄우는 대형 축제를 열고 있다. 1개 점포 단독 행사가 아닌 상권 전반과 규합해 즐길 거리를 더욱 넓혔다.

상권 전반과 연합해 여는 행사들은 지속가능한 상권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역 축제의 형태로 받아들여진다. 1개 점포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기업이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즐길거리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5월을 맞아 유통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상권 연합형 축제가 나들이객을 유혹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서울시에 '명동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제안해 7일까지 명동 페스티벌을 연다. 롯데백화점

이 전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를 전담했다.

김지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부부장장은 "명동 상권은 K-문화바람을 타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국내 최대의 글로벌 관광 특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서울시와 손잡고 명동 상권의 부흥을 위해 기획한 이번 행사가 명동 상인들에게 봄을 부르는 희망의 축제가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명동은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힘입어 공실률이 크게 줄고 있다. 쿠시먼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가두상권 평균 공실률은 21.4%로 전년 동기 대비 4.0%p 줄었는데, 특히 명동이 직전 분기 대비 17.4%p 줄었다.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 본점은 본격적으로 방한 외국

인이 늘어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배 증가하기도 했다.

명동은 아디다스, ABC마트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면서 외국인뿐 아니라 쇼핑 스트리트로 내국인들도 많이 찾는 거리로 변모 중이다.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은 동대문 상권에 함께 자리한 7개사와 '동대문 슈퍼패스'를 진행 중이다. 5월 한달간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을 비롯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두타몰·CGV 동대문점·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등 7개 업체가 참여한다. 동대문 슈퍼패스는 이번 DDP 봄 축제를 시작으로 참여사 및 혜택을 점차 확대해 가을, 겨울 시즌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15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쿠폰북을 판매해 상권 부흥을 노리는 한편, DDP 등에서는 매일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열리며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크게 갖췄다.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관계자는 "동대문 상권의 여러 업체가 손잡고 쇼핑은 물론 전시와 식음, 숙박까지 다양

한 할인·프로모션을 집중해 고객이 체감하는 혜택을 늘렸다"며 "앞으로도 동대문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활성화한 상권 중 하나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수많은 브랜드가 동시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전쟁 중이다. 2일 현재 팝업 스토어를 진행 중인 브랜드는 배상면주가의 '노린마늘', 삼양사의 '상쾌한', 동서식품의 '카누'를 비롯해 그릭요거트 '요즘', 아이돌 걸그룹 '르세라핌', 젠틀몬스터, 마크 곤잘레스 등이 있다.

현재 성수동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인 한 브랜드 관계자는 "성수동은 '팝업스토어의 격전지'로 여러 개 브랜드가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곳"이라면서 "워낙 많은 브랜드들이 동시에 팝업스토어를 열다 보니 눈에 띄기 위한 기획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요즘은 점포나 매장 하나를 조명하기보다는 상권 전반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게 최근 추세"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은 물론 다른 경쟁사와도 힘을 합쳐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더현대 서울, 미술거장 '라울 뒤편' 특별전

프랑스파리 조르주 폼피두와 협업 개점 2주년... '전기의 요정' 등 전시

더현대 서울이 20세기 미술의 거장 중 한 명인 라울 뒤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17일부터 9월 6일까지 더현대 서울 알트원(ALT.1)에 지프랑스 파리의 세계적인 현대미술관 조르주 폼피두 국립 예술 문화 센터와 협업한 특별전 '프랑스국립현대미술관전: 라울 뒤편, 행복의 멜로디'를 진행한다.

'기쁨의 화가'로 불리는 라울 뒤편(1877~1953)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미술 거장으로 손꼽히며, 회화, 일러스트레이션,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화려한 빛과 색으로 삶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주제로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다.



더현대 서울은 9월까지 프랑스 거장 라울 뒤편의 작품 130여 점을 전시한다. /현대백화점그룹

이번 전시는 더현대 서울 개점 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특별전으로, 라울 뒤편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크리스티앙 브리앙 폼피두센터 수석큐레이터가 전시기획 총감독으로 참여했다.

/김서현 기자

## 쿠팡, 지역 중소기업 위한 '상생기획전'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맞손

쿠팡이 10월 31일까지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기획전을 연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상생기획전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주관의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지역 중소기업은 쿠팡 배너 광고 등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을 받으며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은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충북 기업의 약 700개 상품을 선보인다. 참여 기업은 화장품, 애완용품, 정수 필터, 생활 위생제품 등 제조업부터 작물 재배 업체, 광고물 제작 전문 업체 등이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갖고 있음에도 판매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이 작년 기획전을 통해 높은 매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만큼, 올해도 성공적인 기획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

로도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상생 행보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착한상점'을 통해 총 18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농축수산물들과 스타트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우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착한상점에 참여한 중소기업인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40% 성장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이는 동기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 성장률인 11.9%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치이며, 동기간 쿠팡 전체 매출 성장률인 26%보다도 높다. /김서현 기자

## 카카오스타일, 지그재그에 편의점 결제 도입

10대·외국인 고객 편의성 개선

카카오스타일은 '지그재그'에 오픈라인 현금 결제 방식인 편의점 결제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편의점 결제는 카드결제나 간편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없거나 인증절차로 인해 결제가 어려운 고객이 현금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다.

결제 단계에서 '편의점 결제'를 선택해 주문한 뒤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결제 바코드를 편의점에 가져가 현금으로 결제하면 된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 씨스페이스에서 결제할 수 있다.

편의점 결제는 핀테크 기업 '갤럭시아머트리'가 개발한 실시간 선불 결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갤럭시아머트리에 따르면 편의점 결제 전체 이용 고객의 99%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결제 도입으로 10대 고객 혹은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의 쇼핑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서현 기자

## 올리비아로렌, 이지아 여름화보 공개

온라인 세정물 기획전도 진행

세정이 2일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로렌'의 2023 여름 화보를 공개했다. 전속모델 이지아와 함께 했다.

'피스풀파라다이스(PEACEFUL PARADISE)'를 콘셉트로 한 이번 화보는 모던하고 우아한 올리비아로렌의 스타일을 한여름과 잘 어울리는 다채로운 컬러감과 고급스러운 자수 디테일로 완성했다.

화보 속 이지아는 비비드한 옐로 셔츠 원피스를 착용해 산뜻한 서머룩을 완성했다. 앞쪽 자수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편안한 실루엣의 셔츠 원피스는 데일리룩으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다.

여름의 청량함이 느껴지는 그린 색 블라우스에 화이트 데님 팬츠를 매치한 감도 높은 스타일링도 선보였다. 넥라인의 배색 스티치가 돋보이는 그린 컬러의 블라우스는 가벼운 소재감으로 여름철 시원하게 입기 좋다.

올리비아로렌은 화보 공개와 함께 온라인 세정물에서 기획전도 진행한다. 이지아가 착용한 제품을 비롯해 여름철 베스트셀러인 원피스부터 블라우스, 스커트, 정장셋업까지 다양한 여름 시즌 아이템을 만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